

# 새희망의 길

# 새희망의 길

VOL.28



### 현장 24시

1등 미디어를 위한 동력의 중심, 미디어운용센터

### 기획특집

아두, 2016!

### KTTU 카툰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 KTTU 클로즈업

퇴직 후 창업, 착한승리로 일군다

# 웃음이 꽃피는 노동조합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은 불안과 좌절, 혼란과 위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암울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안팎의 여러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꾸준한 자세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가족 효사랑 휴가, 중등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오피스 커밍데이  
 임직원 대리점 개설제도,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애썼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2016 단체교섭 협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현 경영여건에서 노사 모두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에도 12대 집행부의 역할은 변함없이 명확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며 더불어 사는 조직문화로  
 조합원의 실리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도록 지키고 쟁취하겠습니다.



# C o n t e n t s

vol. 28



KTTU NEWS	04	KTTU NEWS
KTTU 포커스	08	2016 단체교섭
기획특집	10	아듀, 2016!
공감코칭	14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세계의 회식문화
이슈 & 사회	16	탄핵 표결 이끈 비폭력의 시대정신 '촛불집회'
현장24시	18	1등 미디어를 위한 동력의 중심, 미디어운용센터
KTTU 카툰	22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KTTU리서치 01	24	환영받지 못하는 이웃, 이주노동자
KTTU 리서치 02	26	2017 연말정산 대비 절세 팁 총정리
KTTU 클로즈업	28	퇴직 후 창업, 착한승이로 일군다
길따라 멧따라	30	아시아 여행의 보고(寶庫), 인도네시아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 KT TRADE UNI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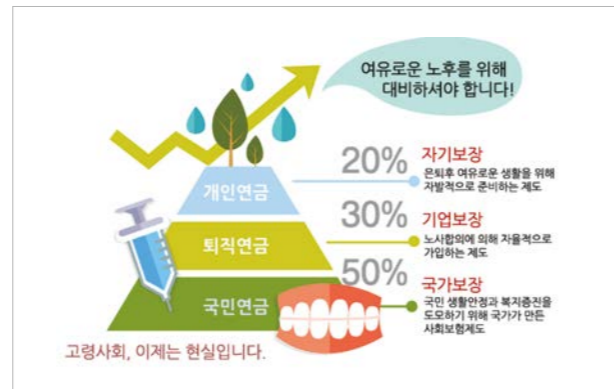
## 개인 연금저축 신청 및 상품별 상세 안내



2016년 단체교섭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연금저축을 새로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및 관련된 Q&A를 공지하오니, 연금저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전 직원(계약직 제외)
    - 신청기간 : 2016.12.23(금) ~ 2017.1.4(수) 18:00
    - 신청경로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신청
    - 제안서 위치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안내
    - 회사지원 금액 및 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매월 5만원씩
  - 핵심 확인사항
    1. 회사에서 현재 지원하는 연금저축 상품에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연장 납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입 중인 금융기관에 연락 후 계약연장 여부 및 연장방법에 대해 반드시 확인
    2. 기존 개인연금저축 상품 중 보험상품은 가입상품에 따라 납입 종료일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가입 중인 보험사에 확인 후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금융사별 상품제안서와 신청방법(화면 예시) 및 Q&A 등 자세한 사항은 [문서/정책] 자료실 참조

## 개인 연금저축 제도 이해 및 추진 안내



KT노동조합은 평균 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조합원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매월 5만원씩 10년간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를 관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단체교섭 체결(11.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부터 개인연금저축 지원과 관련하여 연금저축 제도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자 연금저축 길라잡이 및 연금저축제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차후 조합원이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저축 길라잡이 자료위치]  
KT노동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No.64 연금저축제도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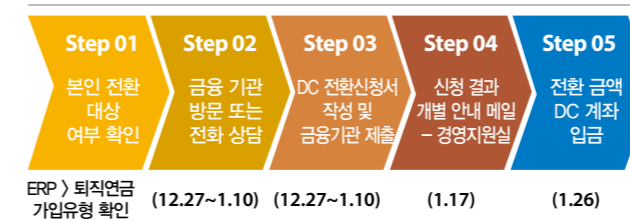
- 구성 : 연금저축제도 이해하기
    - 개인연금저축 길라잡이
    - 연금저축 납입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 개인별 연금정보 조회하기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 추진일정
    - 연금저축 제도의 대한 1차 안내 : 12.8(목) ~
    - 금융사별/상품별 상세 안내 : 12월 3주 or 12월 말 ~
    - 개인별 연금저축 신청접수 : 12월 말경
- ※ 관련문의 : <복지국장> 031-727-2824, 연금저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료실] 참조

## 2016년 제2차 퇴직연금 전환(DB→DC/혼합형) 안내

2016년 제2차 퇴직연금제 전환 추진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희망하는 조합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전체 임직원 대상 퇴직연금 가입유형이 DB형 또는 혼합형 가입자 중 전환 희망자
  - 단, 1년 미만 재직자 및 일반계약직은 제외
  - ※ 2017년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1961.5.31 이전 출생) 중 DB/혼합형 가입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해 DC형 전환 필수
- 본인 퇴직연금 가입유형 확인
  - 위치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 관리
- 전환유형 : DC형 또는 혼합형(DC+DB : DC전환 후 향후 발생 퇴직금은 DB로 운영됨)
  - 단, 2017년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DC형 전환만 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 신청 프로세스



- 전환 기준일 : 2016.12.31(퇴직금 산정 기준일)
- 향후일정
  - 금융기관별 전환 신청 접수 : 2016.12.27(화) ~ 2017.01.10(화)
  - 신청 결과 안내 메일 발송 : 2017.01.17(화)
  - 전환일(DC계좌 입금일) : 2017.01.26(목)
- 금융기관별 안내자료 참조
  - 위치 : ERP > HR > 개인업무 > 게시판 > 공지사항
  - 내용 : 금융기관별 DC형 추천상품, 수익률 안내 등
- 참고사항
  - DC형 및 혼합형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1월, 7월)
  - 법정중도인출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4월, 10월)
  - ※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휴양소 확대시행 요구 등 노사협의회 안건 결정



KT노동조합은 12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9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6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안)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양소 확대 시행 ▲장제용품 물품 추가 지원 ▲렌탈 차량의 차고지 현행화 ▲업무용 PC 대개체 시 개인이 사용하던 렌탈 PC 구매 허용 등 총 4가지 요구(안)를 심의·의결하고 확정했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지난 12월 12일부터 8일간 지방본부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역시 동일 기간에 중앙상무집행위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였다. 또한, 올해 6월과 8월 시행한 조합원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도 참고했다.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 모색해갈 계획이다. 한편 4/4분기 노사협의회는 다음 주인 12월 28일(수) 열릴 예정이다.

## 2017년 실손보험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상무보 및 전체 직원
- 신청기간 : 2016.12.05(월) ~ 12.13(화) 18시까지
  - 신청경로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단체보험
- 보험기간 : 1년 (2017.01.01 ~ 2017.12.31)
- 신청항목
  - ① (필수사항) 직원 실손보험 : 입원의료 or 입원일당 중 선택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입원의료 항목으로 일괄 적용
    - ※ 개인별도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일당 선택이 유리
  - ② (선택사항) 가족 실손보험 :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의료 가입
    - 배우자의 부모도 가입 가능(ERP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기준)
    - ※ 입원의료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비례보상)함
- 신청내용
  - ① 직원 실손보험(회사부담)
    - 입원의료 or 입원일당 중 선택
    - 입원의료 (입원비의 급여성 90%, 비급여성 80% 지원)
    - 입원일당 (1일당 4만원 지원)
  - ② 가족 실손보험 (본인부담)
    - 입원비의 급여성 90%, 비급여성 80% 지원 (1천만원 한도)
    - 대상 : 부모, 배우자 및 자녀(1936년 7월 2일 이전 출생자 가입불가)

· 신청 금액만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초과액은 급여 공제 (2017년 1월 급여 지급시)

■ 2017 실손보험 주요 변경사항

- 퇴원시 약제비 입원의료비 포함
- 다수(중복)보험의 처리
- 약관상 보장사항 명확화
- 일부 정신질환 보장대상 포함 및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등
- 가입자의 과잉의료 방지
  - ※ 자세한 내용과 2017년 실손보험 주요 변경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동계 조합원(가족포함) 안과/치과 의료행사 추진



KT노동조합은 임직원 및 조합원 자녀의 방학을 이용한 안과/치과 의료지원 행사를 추진합니다. 조합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조합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11.30(수) ~ 12.30(금) 18시까지
- 행사기간 : 접수 후 ~ 2017년 2월 28일
- 신청대상 : 임직원 및 가족(계약직 포함)
- 신청방법 : kt2879@naver.com 메일로 신청
  - 메일 원본에 소속, 진료과목, 행사항목, 시술자 성명, 나이, 연락처, 희망점 작성 후 송부
  - 메일 접수 후 병원에서 개인별로 전화하여 개별 일정 예약진행

2016년 하반기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발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KBN 방송실에서 KT 직원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30명을 지역별 박수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추첨은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청접수결과 총 2,634명이 응모하여 약 88:1의 높은 경쟁률을 선보였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부장 이상의 조합간부 및 부장, 센터장, 지점장 이상은 제외했고 본사(사업부서/지원부서 포함) 팀장은 포함시켰다.

선발자 및 예비후보자 명단은 조합 홈페이지 [문서/정책] 자료실이나 Kate 전자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추첨 과정은 KB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어학연수 캠프안내]

- 캠프일정 : 2016. 1.4 ~ 2.1(예정)
- 프로그램 : 실질적 학습효과 및 글로벌 체험(4주)
  - 어학연수 : 캐나다 정규 스쿨링 프로그램 참여 및 홈스테이 등
  - 문화체험 : 유명대학(UCLA, 버클리), 주요도시 및 자연탐방 등
- 어학연수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자세한 일정 개별통보 예정(서약서 제출 필요)
  - 어학연수 대상 학생은 미리 여권 준비요망
  - ※ 예비 후보자는 기 선정된 인원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첨 순번에 의하여 추가 선발 예정
  - ※ 글로벌 어학연수 선정 대상자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 바랍니다.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 "박근혜 정권 퇴진" "현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폐기" 촉구



KT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20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한국노총이 개최한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상징 간부와 전국 지부장 등 참가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재벌 특혜가 노동계약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모든 사태의 원흉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가 그토록 결사 반대하는 5대 노동악법과 2대 지침, 공공기관 해고연봉제를 강행한 것은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수 천억 원을 박근혜 정권에 챙겨주고 그 대가로 자유로운 해고와 파견 확대 등 규제 완화, 재벌 감세,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받은 것"이라며 "구시대의 더러운 정경유착이 박근혜 정권에서 되살아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기점으로 100만 조합원의 투쟁의 의지를 모아,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민 대항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대

회 직후 서울지역 촛불행동에 함께하고, 다가오는 26일 5차 집회에 전 조직적 결합, 그리고 더 큰 차원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마무리한 대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해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은 물론 전국적 국민행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동계 대비 현장근무 조합원 건강팩(Hot Pack) 지급



KT노동조합은 겨울철 추위를 대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건강팩을 구매하여 지급했다.

- 지급대상 : 현장에 근무하는 조합원
- 지급품목 : 건강팩(Hot Pack)
- 지급수량 : 총 30여 만개 (i구매 후 지역본부별 인원비율 배분)
  - 세부 지급방법은 지역본부와 지방본부간 협의하여 결정
- 지급시기 : 2016년 12월
  - 지방본부별 지급수량 확정 : 11.18(금)
  - i구매 및 지방본부별 배송 : 12.9(금)

업무용 렌탈 PC 대개체 추진 ... 선호모델 조사 후 2017년 2월부터 시행



KT노동조합은 지난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조합원 건의사항 중 가장 애로가 많았던 업무용 PC 대개체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자고 요구하여 조합원 선호모델을 먼저 조사 후 현장부터 대개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교체대상 : 임직원 약 2만3천여 명 (16. 9.30 기준)
  - 렌탈방식으로 KT자산 PC를 1인 1PC로 사용하고 있는 인사DB 기

준 임직원

- 단, 2014년 3분기 이후 신규 경량 PC를 받은 임직원 제외

■ 교체사항 비교

구분	현재 PC	교체 PC	비고
CPU	Intel®Core™ i5 3세대	Intel®Core™ i5 6세대	멀티 태스킹 및 처리 속도 향상
메모리	4GB	8GB	
저장장치	HDD 500GB	SSD 256GB	
모니터	14" or 15.6"	13"~14", 15"~15.6"	-
OS	Windows Pro 32bit	Windows Pro 64bit	-
무게	2.2~2.3kg	1.5kg 이하	경량

■ 추진일정

1. 업무용 PC 선호모델 조사 : 2016.11.23 ~ 11.29
  - 3대사육 PC 전시 및 지역본부는 제품 안내서 제공
  - Kate 시스템에서 선호모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업무용 PC 도입 평가에 반영
2. 업무용 PC 교체 시기 : 2017년 2월 ~ 4월 예정
  - 조직 별 일정수립 후 단계적 교체
  - 제조사 출고 일정에 따라 교체 시점 유동적

2016년 금연포상 시행, "조합원 건강관리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해 실시한 금연·절주·운동 캠페인과 연계하여 금연문화 지속 확산과 포상을 통한 금연독려로 조합원 건강관리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2016년 금연성공 기관에 포상을 시행했다

- 포상대상 : 금연성공 기관
  - 기관단위
    - ① 사업/지원부서 : 실/본부 단위
    - ② C부문/네트워크 협업부서 : 지사/센터 단위(지역본부 자체는 담당/부 단위)
- 시기 및 방법 : 2016년 11월 10일(목)/ 기관별 예산이관 포상
- 포상규모 : 총 1,000만원
  - 최우수 : 200만원 (2개 기관)
  - 우수 : 100만원 (6개 기관)
- 선정방법
  - 성공자 확인 : 금연 확인증(6개월 이상 금연 시 보건소 발급)
  - 금연 성공자 수와 기관 자체 금연캠페인 결과 종합심사
  - 자체 금연캠페인 등 금연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도 평가



## 1만8천여 조합원이여, 모두 함께 재도약하자! 2016 단체교섭

여러 차례 본회의와 실무소위를 개최하고 열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저성장이 굳어진 올해 경제 상황에서의 단체교섭은 진통도 많았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컸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노동조합 역시 많은 부담을 안고 교섭에 임했다. 노사 양측의 거듭된 토론과 고민은 조합원의 지지 아래 마침내 협약 체결로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운모 위원장은 2016 단체교섭 가협약 체결 당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열했던 2016 단체교섭 경과를 되짚어본다.

교섭위원 특별교육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10월 14일까지 가동된 교섭위원 특별교육에서는 이전 영상자료 분석, 현장 조사 결과 검토, 노동계 동향분석 등을 토대로 모의교섭을 진행하는 등 실전에 대비했다.

### 1차 본회의, 임금인상 등 요구안 일괄 상정

10월 18일 노동조합과 회사는 오후 2시부터 '2016단체교섭 상건례 및 1차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4대 분야 9개 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고,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정운모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발전적인 전망 속에서 이해와 절충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과 조합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교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0일에 속개된 1차 본회의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임금과 제도개선 및 복지 등에 대해 향후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이어 24일 '제1차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가 열렸으나, 사측의 임금 현행유지 입장만을 확인한 채 정회됐다.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25일, '제1차 복지 실무소위원회'에서 연금저축지원과 복지포인트 및 대부제도 개선 등 복지제도를 강

조해 일단 사측의 긍정적 검토 의견을 이끌어 냈다.

10월 27일 2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노동조합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사측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한 뒤,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공정한 분배”임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10월 31일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 복지실무 소위원회'에서 계속된 노동조합의 요구는 11월 2일 속개돼 다시 이어졌으나 노사 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결국 복지 실무소위 시작 몇 분 만에 정회됐다. 11월 3일, '2차 본회의'에서 결국 노동조합은 사측 대표위원의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진전 없이 반복되는 정회로 난항을 겪어온 교섭과정에 대해 노동조합은 “7일까지 입장변화 없으면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사측에 경고했다.

### 2016 단체교섭 가협약 체결

11월 8일, 노동조합은 오후 3시 '단체교섭 2차 본회의'에서 마침내 '2016 단체교섭 가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위원장은 조합 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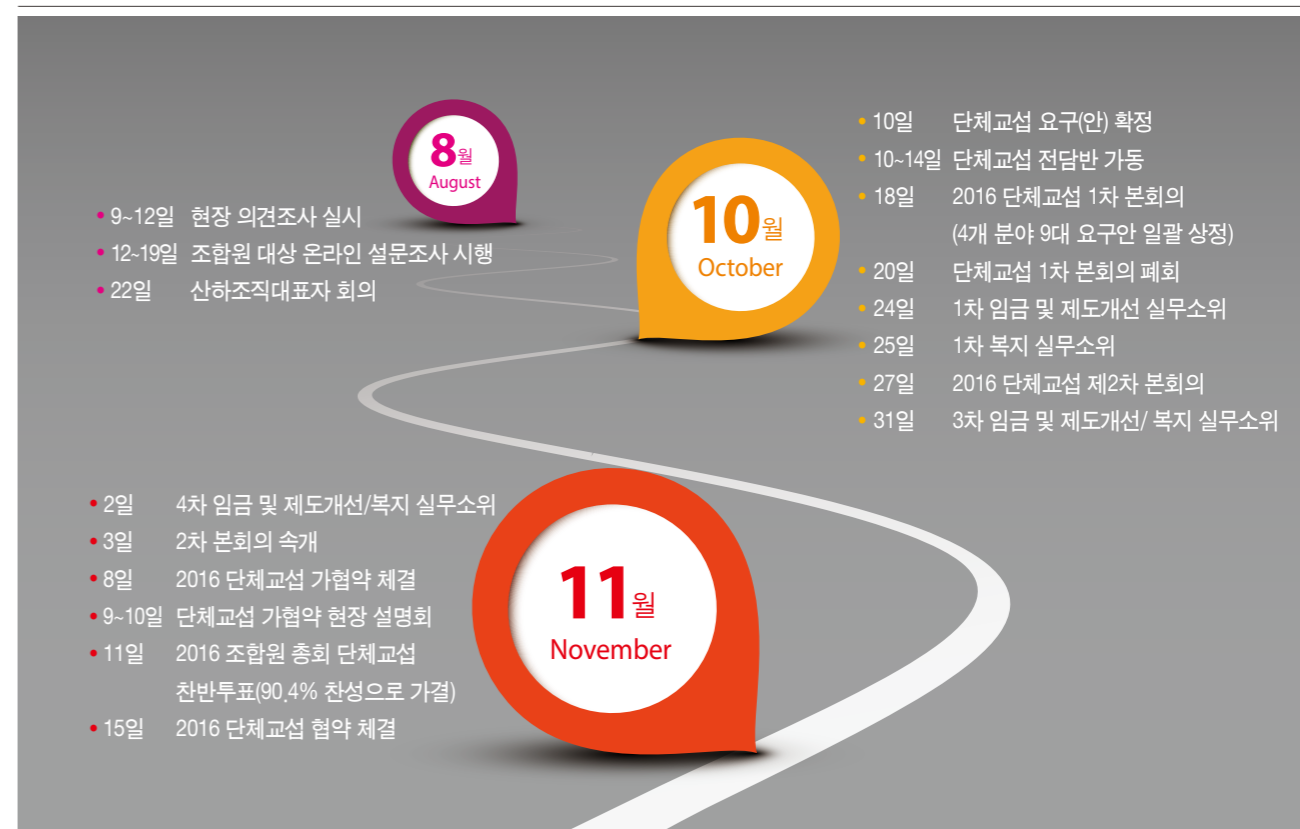
들을 격려하는 한편, 12개 지방본부에 중앙상무집행위원을 파견해 가협약 지부장 대상 설명회와 조합원 대상 현장설명회를 시행했다.

11월 11일 실시된 '2016 조합원 총회'에서는 단체교섭 가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0.4% 찬성률로 가결, 이후 15일 오후 3시 노동조합과 회사는 협약서에 정식 조인했다.

당일 정위원장은 “과정상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노사 양측이 양보해서 원만히 타결할 수 있었다”며, 황창규 대표위원에게 “항상 어려운 현장을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미래와 지속발전 위해 KT를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 인사를 덧붙였다.

지난 10월 18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열띤 협상을 벌여온 '2016 단체교섭'의 긴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비판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다짐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 2016 단체교섭 경과



# 아듀, 2016!

## 올해 일구었던 KT 노동조합의 성과들

다사다난했던 2016 병신년이 저물어간다.  
 올해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KT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현장 의견 수렴 및 조합원 요구사항 피드백

KT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2개 지방 본부 및 산하지부를 대상으로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밀착형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밀착형 간담회는 노사협의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는 조합원들이 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회사로부터 최대한의 협조와 합의를 이끌어내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은 대부제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학자금 상담, 업무용 차량 이용, 제때 집중근무 문화 정착 등 78가지에 이른다. KT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답변으로 정리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공개했다.



###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시행

가족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KT 노동조합의 노력은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제도의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됐다. 전체 조합원 중 670명을 선정해 부모님들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이번 효사랑 휴가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롱베이,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 중국의 장가계와 북경 등 해외여행을 포함해 국내에선 제주도에서 시행됐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기관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원수에 비해 직원 1명과 부모님과 배우자 등 최대 3명씩 선발되어 해외여행의 특전을 경험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은 본인부담으로 동행이 가능하게 했으며, 1인 1동로 추천을 통해 기관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다. 8월 말에 선정자들이 정해졌으며 개별통보를 통해 여행을 다녀온 조합원들은 부모님과 가족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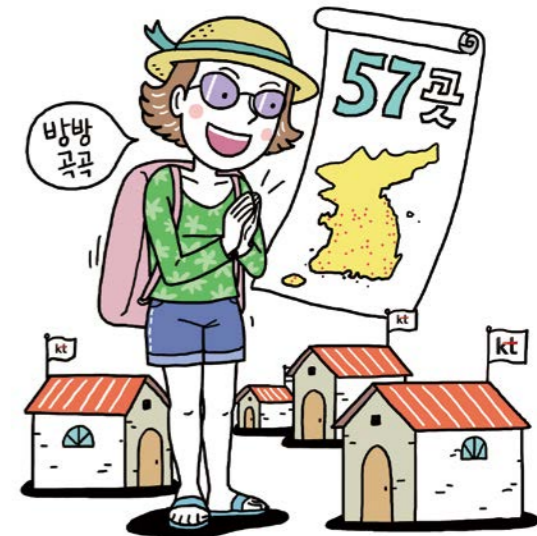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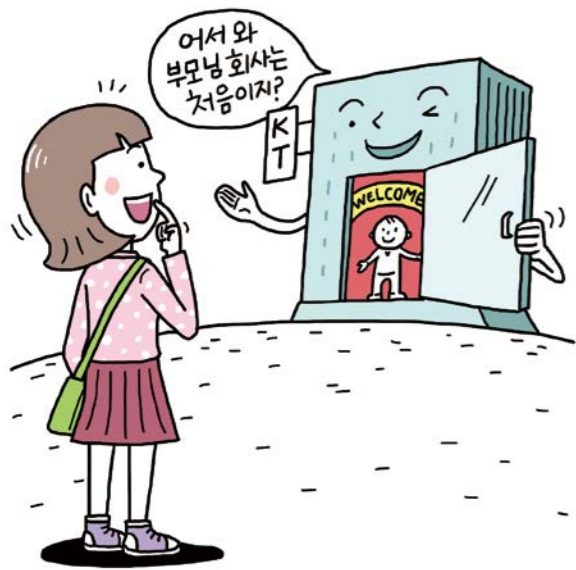
### 중등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KT 노동조합의 어학연수 특전은 조합원 자녀들의 어학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조합원 자녀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조합원 자녀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적 함양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2016년 하계 중등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가 시행됐다. 노동조합 지부장을 제외하고 중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하계 어학연수에서는 추첨을 통해 모두 30명의 자녀가 선정되어 어학연수 혜택을 경험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당첨되어 자녀들이 어학연수 혜택을 누렸던 조합원은 이번 추첨에서 제외됐다.

어학연수는 지난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캐나다 써머스쿨링 프로그램과 해당지역 홈스테이 등을 체험한 후 명문 UCLA와 버클리 대학과 주요 도시를 탐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어학연수는 해당 조합원이 최소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었다.

KT 노동조합은 하계에 이어 동계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조합원 자녀의 추첨을 완료하고 2017년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 정규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똑같이 진행 중이다.





**오피스 커밍데이 확대**

부母的 직장 체험을 매개로 가족 간의 소통과 화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오피스 커밍데이'가 조합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치러졌다.

오피스 커밍데이는 자녀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는 손동작을 이용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링모션과 문자 악성코드를 대응하는 체험을 했다.

KT스퀘어에선 VR 콘텐츠와 홀 IoT 제품을 시연하는 광화문 사육과 서울대학교를 순회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피스 커밍데이를 운영한 결과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8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직원들의 추천 의향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성장사업과 관련된 체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피스 커밍데이 운영을 계기로 수도권에서는 프로야구 응원과 연계해 가족별 테이블석에서 시합을 관람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등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확대 시행했다.

**임직원 대리점 개설제도 시행**

퇴직 후 창업을 고려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임직원 대리점 개설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조합원들 퇴직 후 인생이 크게 밝아졌다. KT대리점을 창업하고자하는 역량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개설의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제도는 실근속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임직원들에게 적용, 시행됐다.

이번 임직원 대리점 개설제도는 지난 7월 지원 모집을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발자를 최종 확정하고,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대리점 창업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리점 개설제도의 지원 자격은 휴직 및 파견을 제외하고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를 한 과장급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부여된다. 구체적인 선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영업력과 사업계획, 그리고 영업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평가 및 면접을 통해 1차 선발을 하고 3개월 동안의 교육훈련 결과를 반영해 지원자를 다시금 추려내면 면접을 통해 선발자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자가 대리점을 창업하면 창업 후부터 퇴직하지 않고 1년 동안 휴직상태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1년 동안의 의무 휴직 상태에선 조기 복귀와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최초 휴직 일로부터 6개월 동안 기준급과 역량급이 더해져 100%의 임금이 지급되며, 6개월 이후엔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휴직 기간 중 대리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대리점을 운영한 본인에게 귀속되며 매장 운영을 위한 관리금과 보증금 등의 운영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KT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2016년에도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조합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조합원의 4~6학년 자녀가 대상이며 6개월 단위의 1차(3~8월), 2차(9월~다음해 2월)에 걸쳐 학년별로 70명씩 210명을 합쳐 상/하반기 동안 420명의 아이들을 위해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90점 가까이 높은 것을 감안해 5, 6학년에 국한되어 진행된 것에서 4학년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난해보다 60명이 늘어나 더 많은 조합원의 자녀들이 혜택을 누렸다. 콘텐츠는 영어 전문 콘텐츠인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를 기본으로 자주 쓰이는 문장의 반복 및 문법 시퀀스의 자연스러운 습득과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레벨 및 수준별 학습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문장 학습 위주로 진행된다.

Writing 과정은 매주 1회씩 침삭 수업으로 진행되며 Junior TOEIC Test도 매월 실시한다. 화상 영어학습으로 익힌 내용에 대해 개인별 Writing을 통해 침삭 지도하는 한편, 조합원들은 Junior TOEIC Test를 이용해 개인별 학습정보 및 성취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하계 휴양시설 운영**

지난 2016년 하계 휴양시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매우 높았다. 2016년 선정된 하계 휴양시설은 기존 휴양지에 비해 지역별로 다양한 경관을 비롯해 시설과 편의성이 확대되어 조합원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016년 새롭게 선정된 휴양지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객실 및 부대시설이 크게 고급화되고 현대화됐다. 해안가 중심에 위치한 신축 휴양소 또는 자체 놀이시설을 갖춘 유명 리조트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교통 접근성과 주변 관광지의 연계성을 고려해 휴양시설의 지리적 여건도 크게 고려됐다.

2016년 새롭게 선정되어 운영된 휴양시설은 대관령, 도고, 무주, 경주, 지리산, 거제 등 수련관 6개소를 비롯해 전국의 리조트로 구성된 20개 하계휴양소 및 전국 31개 지역에 분포한 콘도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콘도는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고려해 추첨에 따라 일정을 배정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2016년 하계휴양소에 조합원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움에 따라 KT노동조합은 2017년에는 더욱 편리하고 멋진 하계휴양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오늘 술 한 잔 할까?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세계의 회식문화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바쁜 시기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각별하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특유의 '회식문화(Business boozing)'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한국인은 일하지 않을 때는 '소주'를 마시며 업무 성과를 축하하거나 애환을 달랜다"며 우리의 회식문화를 언급했다. 한국에서 회식은 직장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만큼 일상적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세계 각국의 다양한 회식 문화를 들여다보자.



## 일본

사실상 유일하게 우리와 비슷한 회식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사내 메일을 통해 자세한 회식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 여부를 묻는다. 참석은 비교적 자유롭다.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게 되더라도 눈치를 받지 않는다. 또 회식에는 참가비가 있다. 일명 와리깡(割り勘)이다. 와리깡은 더치페이와 같은 의미의 일본어로 회식이나 동료들 간의 사적인 모임에서도 더치페이가 일상화 돼 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친목비'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기도 한다. 그 금액이 회식에 쓰인다. 술을 강요하거나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막대한 택시비 부담을 안게 된다.



## 중국

한국과 같은 회식은 없다. 다만 일년 중, 중요한 행사나 특별한 날에만 회식을 하는데 대부분 음식점에서 성대한 식사를 한다. 12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리나 평소 가정에서 먹기 어려운 고급 음식을 그릇이 겹쳐질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중국 특유의 회전식 원형식탁에 여럿이 둘러 앉아 식사를 한다. 중국인은 평상시 검소하게 생활하고 특별한 날 확실한 보상을 받는 것을 즐긴다. 거창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손님을 대접할 때 음식이 남더라도 손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미국

우리와 같은 회식은 없지만 크리스마스나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다. 각자가 준비한 음식과 술로 일과 중에 회사에서 파티를 하거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성대한 파티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부분 연말파티에는 직원들의 가족을 초대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는 여러 파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연말 파티는 우리의 송년회와 같이 직장생활의 필수 요소다. 연말연시를 기념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장생활과 사생활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도 작용한다. 하지만 참석을 강요하거나 권위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초대해 직장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 스웨덴

스웨덴에는 회식 대신 '피카(Fika)'가 있다. 피카는 '커피를 마신다'는 의미의 스웨덴식 티타임이다. 근무 중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직원들이 모여 커피나 차에 간단한 빵과 쿠키를 곁들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휴식 시간이다. 스웨덴에서 피카는 동료들 간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집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통상 오전 9시와 오후 3시면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고 의무적으로 피카에 참여해야 한다. 피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례로 여겨지기도 한다. 피카는 정부 차원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문화다.



## 영국

영국 역시 우리같은 회식은 없다. 하지만 연말 파티가 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영국의 회식은 보통 레스토랑에서 진행되는데 약 한달 전부터 사내 메일을 통해 회식 공고를 내고 참석 여부를 묻는다. 역시 참여는 선택 사항이다. 경우에 따라 파트너 동반 여부를 공지 하기도 한다. 회식 전 직원들의 음식 메뉴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 및 채식주의자들은 따로 음식 메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보통 회식은 영국식 펍이나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기 때문에 미리 메뉴 목록을 안내하고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 독일

크리스마스 연말파티를 제외하면 옥토버페스트가 독일 직장인에게 거의 유일한 회식의 기회이다. 독일에서 회식은 거의 없다. 직장에서는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은 동료를 위해 회사 내에서 간단한 생일파티를 하는 정도다. 하지만 옥토버페스트 기간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부서 별로 맥주 축제 천막의 테이블을 예약해 준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1리터 맥주 한 잔과 통닭 반 마리의 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한다. 친구나 가족과 갈 때 사용할 수도 있다.





# ISSUE & SOCIETY

## 탄핵 표결 이끈 비폭력의 시대정신 ‘촛불집회’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00만 촛불 민심과 하나 되다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지 한 달 만에,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여전히 시민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9차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어져왔다. 성숙한 시위문화에 외신들 또한 놀라움을 표했고 촛불의 엄중한 경고는 결국 탄핵안 표결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의 촛불집회가 인류사에 새로운 시위 역사로 남는 순간이었다.



### 4차 촛불 대항쟁의 선봉에 선 한국노총

변화의 시작은 촛불 민심이었다. 지난 10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처음 거리로 나섰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2만 명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5주 만에 190만 명을 돌파했고, 12월 10일까지 일곱 차례의 시위를 합산한 총인원은 무려 745만 3,400명. 특히 12월 3일 6차 집회 때는 서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대구 5만, 제주 1만 등 전국에서 헌정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을 기록하면서 촛불은 그야말로 핫불로 커졌다. 광장의 촛불 민심이 100만을 넘어선 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겹친 3차 촛불집회 때부터다. 여세를 몰아 4차 촛불집회는 전국노동자대회가 포문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11월 3일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11월 19일 오후 1시, 서울광장에는 5만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분

쇄! 2016전국노동자대회'가 시작됐고, 오후 3시부터는 노동자·시민 한마당 행사에 합류해 100만 시민들과 함께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구시대의 더러운 정경유착이 박근혜 정권에서 되살아났다"며, "박근혜 정권하에서 노동조합은 존립자체를 위협받았고 한국노총 또한 70년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 투쟁의 길을 헤쳐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노리유키스즈키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사무총장도 참석한 가운데, 추대표는 "노동개혁은 재벌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뒷거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세대와 계층, 이념 아우르는 촛불시위

촛불집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 시위문화로 정착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숨진 고 효순·미선양 추모 집회 때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 반대 등 국가적 위기와 고통의 순간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의 분노와 간절한 염원은 폭력의 크기 대신 한 자루의 촛불에 밀도 있게 응집되어 타올랐다.

이승만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1960년 4.19혁명, 신군부의 광주민주항쟁 진압에 분노한 중산층이 주도했던 1987년 6월 항쟁. 경찰의

무차별 발포 앞에서 함께 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던 과거의 시위는 어느새 촛불로 대표되는 범국민적 평화 시위로 바뀐 것이다. 엄청난 인원이 광장을 메우며 9차까지 이어진 촛불집회 동안 한 명의 연행자도 물리적 충돌도 없는 시위 문화에 외신들은 놀라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이번 촛불집회는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국정농단 사태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촛불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시위와 시민운동의 중심 이슈는 노동과 경제 또는 여성, 그리고 환경 등이다. 다수의 공감대를 불러 모드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중고생과 대학생, 회사원,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등 특정 사상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응집력을 보였다. 정권에 실망하고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진 데 대한 분노는 진보와 보수,

10대와 주부들,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중·장년층

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 이념을 아우르며 목소리를 쏟아냈다. 집회현장에 등장한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탈 이념적 깃발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념보다는 취미와 기호를 동원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광장에서 촛불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민주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대한 분노인 동시에,

고용불안과 입시경쟁, 경제 불황과 집값 상승, 대기업 횡포 등 우리 사회에 내재된 모든 갈등과 분노가 '최순실 게이트'로 한꺼번에 분출하게 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다음날인 12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104만 명이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자축도 잠시, 어김없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면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아직 남은 숙제는 많고 정국의 흐름은 알 수 없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원하는 건 최순실 게이트의 처벌만은 아니다. 수구기득권 세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트리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추운 겨울,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이처럼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 망각된다면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촛불의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 “방송중계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죠”

## 1등 미디어를 위한 동력의 중심, 미디어운동센터

통신 기술과 방송 플랫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미디어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IPTV의 경우 가입자가 이미 1300만 명을 돌파했고, 올레tv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1만(2016년 11월 말 기준) 명을 기록하며 통합 미디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 온 KT의 미디어 운용방식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비압축 방송을 거쳐 이제 UHD방송으로 발전해 가는 방송중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중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미디어운동센터지부에서 KT 방송중계의 산 증인 이영래 조합원이 그 자부심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강남네트워크운용본부  
미디어운동센터지부

• 방송중계팀  
이영래 조합원

“중계 시에는 소속을 따지지 않고 현장 카메라, 중계차, 현장 방송직원, 장비, 방송사, 방송중계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해요.”



### IPTV부터 방송중계까지

지난 달 29일 서울 구로사옥, 오전 9시 구로 방송센터는 방송채널 점검이 한창인 가운데, 정면 여러 개의 화면으로 각 방송사의 채널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밤을 꼬박 지새우고 퇴근을 준비 중이라는 이영래 조합원을 만난 곳도 그곳이다.

미디어운동센터는 현재 구로센터를 포함 여의도센터와 목동센터, 광진센터 등 4개 센터에서 총 9팀 103명이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

가장 많은 6팀 71명이 근무하는 여의도센터는 IPTV 운용을 비롯해 플랫폼 설계와 구축, 대형고장과 품질관리, 신사업 발굴 업무를 맡는다. 목동센터는 모바일tv 운용을, 광진센터는 CATV 프로그램 재전송 업무를 맡고 있는 한편, 구로센터 10명의 방송 중계팀이 지상파 3사 및 경마/경륜/경정 등 전국권 방송사 운영 감시 및 현장 방송중계를 맡고 있다.

IPTV 장비나 서버 등 장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망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고장을 없애거나, 채널화질과 음질을 개선해 품질을 높이는 일도 모두 센터의 몫이다. 해무와 태풍으로 버퍼링이 지연되고 자주 끊기던 백령 기가아일랜드의 IPTV

의 품질이 VOD서버 구축으로 기상변화에 상관 없이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건 잘 알려진 사례다. 또 일괄 방송하던 채널 광고를 전국 2만2,000개 동 단위로 구분해 각각 다른 광고를 제공하는 IPTV 스마트광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근 지능형 음성인식 스피커 ‘기가 지니(GiGA Genie)’로 음원 서비스와 가정용 사물인터넷 제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점도 혁신 사례다.

그런데 구로센터는 일반 가입자 고객이 아닌 방송사를 상대한다는 게 다른 센터와는 구별된다. “가입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와 달리 방송중계팀은 방송사를 상대로 대형 송출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채널의 경우 KBS의 방송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입수한 후, 방송 시간에 따라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각각의 콘텐츠를 송출해 각 지역에 광 전용망으로 전달하면 지역방송국에서 따로 편집하고 광고도 넣어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방송중계팀이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 국내 모든 방송사는 KT 방송중계팀을 거친다

방송중계 업무만 통틀어 18년이라는 이영래 조합원의 KT와의 인연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서울통신망운용국 전송부 입사를 시작으로 98년부터 라디오 방송중계 업무를 시작했다. 2000년 방송중계팀으로 라디오 방송시설이 이전되고 나서는 TV와 라디오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어 지금에 이른다.

그의 자취는 곧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비압축 방송을 거쳐 UHD 방송으로 발전해 가는 TV방송중계 방식의 변화로도 설명된다. 지금은 방송시설과 라인이 많이 늘어나서 안정적인 방송 제공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과거에는 방송사가 SNG중계차나 자가 무선망을 이용하고, 테이프를 직접 가져와서 방송 했습니다. KT가 광TV 방송중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스포츠중계 때 방송시간 경쟁이 심해 수개월 전에 청약하는 방송사도 많았죠. 광TV 중계는 품질이 안정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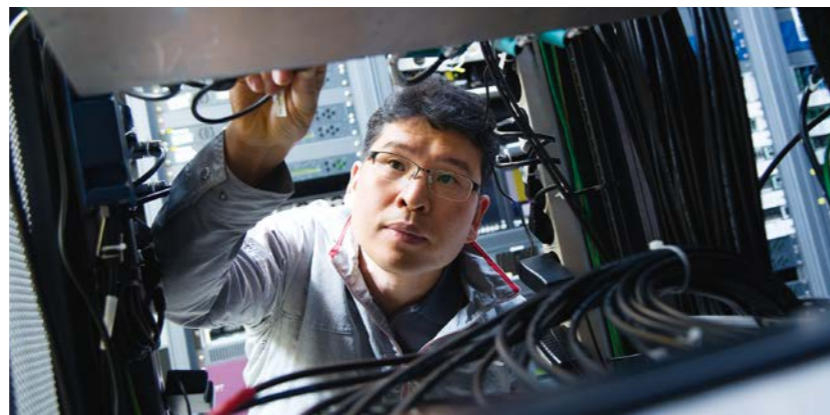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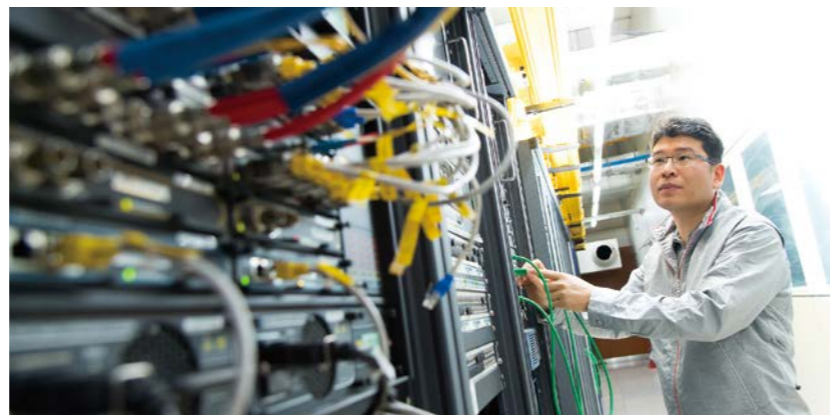
2000년대 초 600회선에 불과하던 방송회선은 현재 1500회선으로 늘어났고, 남산에서 무선망을 이용해 전국 TV방송망을 운용하던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2008년부터 전국을 비압축 광 TV망으로 전환해 방송중계팀에서 감시하게 되었다. 2011년 말 종합편성채널이 개국되면서 방송회선은 보다 증가했다. 공중파와 4개 종편, 연합TV, OBS, YTN까지 국내 모든 방송사는 명실공히 KT 방송중계팀을 거치는 것이다.

“방송중계팀은 공중파 3사에서 보내주는 방송신호를 전국 36개 지역방송국까지 최상의 품질로 전달하고,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에서 방송 송출사까지의 방송도 중계합니다. 또 과천마사회로부터 마사회 32개 지점, 그리고 광명경륜장과 미사리 경정장에서 17개 지점으로 방송을 중계하죠.”

더해서 선거나 대통령 취임식, 국회방송 등 국가주요 행사와 사회적 이슈, 각 종교행사나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사고 발생 시, 그밖에 축구 야구 전국체전 골프 씨름 마라톤 등 각종 스포츠중계가 방송사까지 최상의 상태로 전달되도록 방송장비와 방송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 방송사와 방송시간 뉴스나 스포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곳도 방송중계팀이다.

**디지털로 중계하던 2002 월드컵 잊지 못해**

최근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처럼 갑자기 중계가 증가하거나, 방송사의 긴급청약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생방송을 할 경우 긴장감은 백배다. 방송장비와 전송장비가 충분한 시험을 거쳐 안정된 후에 사용하는 게 정상이지만, 사건 사고 발생 시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손에 땀이 날 정도예요. 10개 방송사가 동시에 방송을 분배 받아 실수 없이 중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와 방송중계팀 근무자 간에는 찰라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중계 업무를 하니 당연히 TV를 실컷 볼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방송품질 상태만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청은 먼 얘기다.

이영래 조합원은 2002년 3월 국내 최초로 디지털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개국하고, 그해 6월 월드컵을 중계현장에서 방송사까지 디지털로 방송 한 때를 잊지 못한다.

“기존 모든 스포츠 방송이 아날로그 방식이었고 디지털 방송 중계 경험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죠. 모두가 축제분위기였지만 우리는 여러 발생에 촉각을 세우고 모니터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무사히 중계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이런 적도 있다. 과거 삼성SDS가 KT망을 사용해 사내방송을 하던 시기, 동료의 실수로 대표이사의 인사말 중에 에버랜드 라인을 연결해 버린 것이다. 조례회의 중 갑자기 바뀐 뺨에로의 춤추는

장면에 당황했을 그 직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그는 방송 사고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특정후보 방송 시 만일 방송사고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 방송도 중단될 경우 ‘사탄이네, 종교탄압이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혼연일체 되어야 최상의 품질이 나온다**

24시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야간에는 혼자 근무하다 보니 도시락도 챙겨야 하고, 저녁식사도 밤10시가 넘어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게들이 문을 닫는 명절 때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야간경기가 시작되면 종료 전에 화장실도 못 간다.

늘 이런 긴장의 연속이니 몸은 축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당연지사. 이런 중에도 이 조합원이 건강을 챙기는 비결이라면 집이 있는 광명에서 구로까지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간혹 카메라를 매고서 여행길에 오르는 것.

“카메라 배경 잡는 노하우가 몸에 스며들다보니 사진촬영도 흥미로워 지더군요. 업무가 눈에 녹아든 거죠. 멀티미디어학과에 다니는 아들과도 영상이나 사진에 관해 대화가 잘 통해요.”

그가 생각하는 방송 중계의 매력은 각 방송사 PD, 기자, 감독 등과 직접 업무를 진행하며 모든 방송의 오리지널 소스인 현장 중계차 카메라 신호를 직접 테스트하여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여전히 아날로그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람간의 신뢰와 호흡이 업무에서 중요하다.

“방송중계팀은 한배를 탄 선원이에요. 서로 챙겨야 합니다. 일사분란하게 한 몸처럼 일하지 않으면 방송사고로 이어지니까요. 우리는 16년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전통이 있어요. 새로운 방송기술 습득을 위해 매달 일회 토론과 교육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죠. 중계 시에는 최상의 품질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신호가 이상은 없는지 방송사까지 잘 전달되는지 방송사 근무자와 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속을 따지지 않고 현장 카메라, 중계차, 현장 방송직원, 장비, 방송사, 방송중계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해요.”

미디어운동센터는 현재 통합 미디어플랫폼 구축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여의도 IPTV센터와 구로 방송센터의 이원 체계로 플랫폼을 집중시켜,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사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VOD 백업시설을 구축하고 OTV 중앙노드를 구로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곳에 이 조합원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방송중계는 어느 한곳에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역설하는 이영래 조합원. 때문에 그는 전국 방송현장에서 수고하는 조합원들과 방송담당 근무자들이 고맙고 또 고맙다.

“전국 방송현장에서 밤낮없이 대기하고, 장애 현장에 출동해서 서비스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조합원들과 방송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젊은 인재들이 방송중계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운동센터지부 방송중계팀



#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노후 걱정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2016년 단체교섭 합의사항 : 2017년 1월부터 매월 5만원씩 10년간 재직기간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 : 최초 지원일 현재 재직자(2017. 3. 31까지 입사자 포함)

노후 걱정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만 35세**  
(연금저축 가입)

납입기간(20년)

**만 55세**  
(연금 개시)

연금수령(20년)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노후 대비가 부족할 수 있죠.

**가입 예시**

▶ 개인별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연금저축의 가입 설계(납입기간, 연금 개시 연령)를 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3층(자기보장) 여유로운 생활보장 : 은퇴 후 개인이 준비

**퇴직연금**  
2층(기업보장) 안정적인 생활보장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 노후를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 가입

**국민연금**  
3층(국가보장) 기본적인 생활보장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퇴직 후 평균 30~40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에는 개인 연금저축이 딱이네!

★ 연금저축 꼭 알아야 할 6가지 ★

- ①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 ②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 ③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 ④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 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 ⑥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계좌' 도입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저축의 금융사별 상품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은행·증권사는 자유납입 방식이고, 연금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은행권 상품은 주로 채권형과 안정형(주식10%)으로 실적배당 및 원금보장 등 예금자보호를 해주지만, 반면 증권사 펀드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식투자 비중을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연금저축 상품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를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내역을 확인하려면?

1. 포털 사이트(구글, 네이버 등)에서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검색
2.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수, 원가입 3일 후 금융감독원 문자수신 확인 이후부터 사용가능)
3. 연금정보 조회(공인인증서 필수) 현재 본인이 가입중인 연금자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전체 정보조회 가능  
<https://100lifeplan.fss.or.kr>

보험사는 정기납입 방식이고, 연금수령 기간을 종신(생명보험) 또는 최대 25년(손해보험)까지 할 수 있어요. 사업비를 차감한 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반영해 금리를 연동하지만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 이율(상품별상이)까지는 보장합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 장점 비교하기**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
자유로운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 결정	○	○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가능		○		
원금 보장	○		○	○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		○	○

- **세제 혜택**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나이(연금 수령일 현재)	세율
확정형 연금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생명보험 회사만 판매)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연금의 수령시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외의 형태(해지 등)로 수령하시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적용.

미리 미리 꼼꼼히 체크해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 무엇이 권리보장이고 동등한 대우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웃,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200만의 시대다. 30여 년을 우리와 함께해 온 그들은 그러나 아직 국외자로 취급받는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임에도 제도적인 제약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기본권은 자녀문제, 편견과 차별, 정체성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현실 속에서, 값싼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가치나 법적 기준, 배타적인 인종적 가치판단을 넘어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이 될 날은 아직 요원한 것인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안산의 사례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의 현실과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3D업종을 기피하던 8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은 1992년 산업연수생 제도 때부터다. 이후 2004년 8월 17일부터는 고용허가제로 그 문이 더 넓어졌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4년 10개월의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고 입국과 재고용의 권한이 사업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회용 노동자만 생산한다는 비판 아래 정책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심지어 임금체불과 폭행, 성추행을 겪는다 해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또 허가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2015년 1월말 현재 국내 이주민 수는 약 1,774,603명,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61만8,516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MOU를 체결한 아시아 16개국 출신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등이지만,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비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해외동포를 비롯해 선원 노동자나 예술행행 노동자, 음식점요리사 등 이주민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국내 전체 이주노동의 문제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의 경우, 2016년 6월말 현재 90개국 7만5,668명의 이주민이 생활한다. 안산시 인구의 9.8%로 10명당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과거 노동인구가 대거 밀집됐던 안산은 국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주민이 점차 유입되었는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가깝고 저렴한 다세대주택이 많은데다 이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반이 형성된 단원구 원곡동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안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노태민



### (사)안산이주민센터

전화 031) 491-8785~6  
홈페이지 [www.migrant.or.kr](http://www.migrant.or.kr)  
후원계좌 (사)안산이주민센터  
외환은행 630-005998-164



### '국경없는 마을'로 다문화의 중심지 된 안산

원곡동이 이주민의 터전으로 자리 잡는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컸다. 특히 94년 박천응 목사에 의해 설립된 안산이주민센터(당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국내 첫 이주민 NGO단체로 99년부터 다문화공동체인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안산이주민센터 노태민 사무국장은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이주민과 원곡동 선주민과의 충돌을 보고 시작했다. 지역 내 내국인과 이주민이 국적과 언어, 피부색과 종교,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명절 때 갈 곳 없는 이주민을 위해 명절 축제를 열어 함께 즐기며 '안산 월드컵 시골복합 축제', '주민 만남의 날' 등 다양한 행사도 매년 개최한다. 에너지를 분출할 월드컵 행사나 마을 청소, 주민 만남의 날 등 다양한 마을 축제도 매년 개최한다. 지난 11월에는 13일간 다문화올림픽대회도 열었다. 덕분에 주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초기 활동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너무 열악했다.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은 때라 시위도 하고 노동자들을 규합하면서 발전해왔다. 지금도 악용 사례는 많지만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는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온 안산이주민센터는 이제 모든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지원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방과 후 학교인 '한국다문화학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기관인 '코시안의 집', '이주여성상담소' 등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적 배경지대에 놓인 이주민 가정의 자녀 교육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는 게 노태민 사무국장의 얘기다.

"국내 보육시설은 이주민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가 일터로 간 사이 대부분 집에 방치된다. 그래서 '코시안의 집'을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가면 또다시 방치되기 때문에 다문화학교를 열게 됐다. 또 부모가 불법체류자면 태어난 아이 역시 불법체류자가 되어 가족들이 함께해도 생활이 어렵다.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80%가 이주민이다. 국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은 추방당하면 가기가 싫은 거다. 이 아이들은 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자라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차별과 상처를 받는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수자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로 급속하게 인구가 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주민을 회피하거나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주민은 우리사회의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문화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매년 12월 18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기도 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노동과 삶의 현장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다면 다문화라는 단어는 허울에 불과하게 된다.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와 그들을 동등한 관계에서 바라볼 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고 평등하게 일하며 동등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그들도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 출발이다.

# 꼼꼼히 챙기고 알뜰하게 돌려받자 2017 연말정산 대비 절세 팁 총정리



'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 기대반 걱정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세금은 줄이고 환급금은 늘리는 절세 노하우로 연말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보자.



### 알다가도 모를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당해 연도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대조해 과부족을 정산·조정하는 것이다. 즉 원천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되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부족분이 징수되는 것이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을 잘 증빙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할 수 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단계 누진세율(2016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즉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율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과세표준 구간에 줄여야 한다.



### 201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17 연말정산(2016년도 귀속분)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폐지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만20세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이나 만60세 미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적용된다. 2016년 9월 2일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상환한 금액은 2016년 귀속분에 해당한다.



###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1. 부양가족공제 ●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할 경우,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2. 장애인공제 ●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다.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된다.



3.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여야 하며, 주택규모는 85㎡(약 25평)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해당한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가입 은행에 12월 31일까지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가입 5년 이내 해지하거나 85㎡ 이상 주택의 당첨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6.6%로 추정된다.

5. 신용카드등의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분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면 된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사용분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100만 원 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대비하기

1. 공제혜택이 큰 금융상품 이용하기 ● 개인연금 저축은 400만원,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저축액의 13.2%,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2. 다 쓴 영수증도 다시보기 ● 라식 수술비, 콘택트 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 등의 의료비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항목은 연말정산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영수증을 첨부해 추가해야 한다.

3. 월세 챙기기 ●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가 공제 가능하다. 이미 지난 월세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잊고 있던 월세도 꼭 챙겨보자.

4. 기부금 확인하기 ● 각종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하기

통합검색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민원증명

신청/지출

신고/납부

상담/저보



윤기봉 퇴직사우  
브이티스마트팜  
강원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200-1번지  
Tel : 033-648-9888

## 퇴직 후 창업, 착한송이로 일군다

한겨울 추운 날씨와는 달리 실내는 따뜻하고 아늑하기만 하다. 비닐하우스에서 버섯 종균을 키우고 보살핀 지 3년째. 성공창업의 꿈을 키우는 퇴직조합원들의 두 번째 인생이 100평 온실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 영동지역 최초의 착한송이버섯 농장

온도는 13도, 습도는 85%가 버섯이 자라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이다. 버섯 종균이 심어진 참나무 톱밥 배지를 하우스에 들여와 2~3일이 지나면 버섯 새싹들이 몽글몽글 올라온다. 벽돌만한 크기의 메주처럼 생긴 배지에 가장 알맞은 버섯의 수는 열다섯 개 정도. 숙야내기를 하고 다시 5일이 지나면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해 출하한다.

“겉모습은 평범한 표고버섯이지만 맛을 보면 고소한 송이맛이 나오. 우리나라 송이버섯이 너무 비싸니까 일본사람들이 송이맛이 나는 표고버섯을 대체용으로 개발한 거지요. 표고버섯은 갓을 주로 먹는 반면 착한송이버섯은 줄기에서 고소한 송이 식감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92년도에 입사한 최재덕 퇴직조합원은 그의 고향인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지역에서 주로 근무해왔다. 2014년에 퇴직하면서 김영준, 이동성, 이근재, 우창기 등 총 여섯

명의 동료들과 농업법인인 브이티스마트팜을 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인 지난 84년도에 입사한 윤기봉 퇴직조합원도 그 중 하나다.

“착한송이버섯은 다른 종류의 버섯보다 식감이 좋고 맛이 뛰어나요. 다른 농장에선 저렴한 중국산 종균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일본산 종균을 이용하고 시설 역시 순수 국내산으로 깨끗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송이’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버섯 재배하는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농장을 언제나 개방하고 있어요.”

하우스 안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조절된다. 첨단 IoT 시스템으로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농장의 시설은 항상 쾌적하다.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버섯들은 강릉지역 6개 농협매장에서 주로 소비되며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로를 차츰 확장해가고 있다.

### 배지 재활용으로 곤충사육 확대

“현재 강릉은 쌀과 블루베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우리 착한송이버섯도 강릉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송이버섯 특화지역인 양양을 제외하고 영동지역에서 버섯으로 보조금을 받는 농장은 우리들이 유일합니다.”

최재덕 퇴직조합원은 지난 2년여의 노력 끝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착한송이버섯의 인지도가 적은 탓에 소비자들 수요가 많지 않고, 납품처로부터 저가의 공급을 요구받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착한송이버섯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더욱 커지고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낙관한다. 윤기봉 퇴직조합원은 언젠가 사업이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사업 여건이 좋아지면 버섯재배가 끝난 참나무 배지를 이용해 곤충사육을 해볼 계획이에요. 참나무 배지는 천연의 비료이기 때문에 원예업자로부터도 인기가 아주 높거든요. 버섯은 다른 작물과 달리 수확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라 봅니다.”

### 성공 비결은 꼼꼼한 준비와 욕심 버리기

브이티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퇴직조합원들은 모두 버섯을 처음 접해본 초보 농사꾼들이다. 농사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퇴직금을 털어가며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KT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휴직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재직 중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력 전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은 20년 이상의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1년 6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까지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최초 1년 동안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엔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현재 매해 상/하반기로 시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창업지원을 통해 지난 11월부터 휴직을 통해 각자의 창업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브이티스마트팜은 강원에서 6명의 퇴직사우들이 자금을 모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모로 회사의 도움으로 순조로운 퇴직 후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젊을 때 일찌감치 입사해 일하느라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윤기봉 퇴직조합원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버섯농장 하기 전에 인제에서 황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황태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들도 KT의 휴직 창업 프로그램이 부럽다고 말할 정도예요.”

KT의 휴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조합원들의 안정적 퇴직 후 삶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휴직 창업지원제도가 반드시 성공창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 전 창업을 위한 꼼꼼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윤기봉 조합원은 조합원들을 위해 조언한다.

“창업을 하겠노라 결심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인맥을 다져놔야 합니다. 창업을 한 후에도 30% 정도의 여유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내 돈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금은 본인의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될 뿐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브이티스마트팜을 일군 퇴직조합원들이 말하는 성공 창업의 길은 크게 세 가지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지나친 욕심 버리기, 그리고 휴직 창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딛고 안정적인 창업을 이루기까지 조합원들의 노력과 KT의 창업지원제도가 어우러져 성공 창업의 훈훈한 이야기가 강릉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 ‘안식년을 위한 해외 자유여행지 소개’를 시작하며

겁 없이 피만 끓던 시절,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 이야기다. 인도 북서부 고산지대에 갔다가 다시 수도인 델리로 돌아오는 여정 중, 길을 잃었다. 반드시 중간에 갈아타야 했지만 에어컨 없는 버스에서 반기절 상태로 낫 놓고 있다가 지명도, 위치도 알 수 없는 지역에 험혈단신 떨궈진 것이다. 공중전화나 버젓한 건물은커녕 그 흔한 표지판 하나 없는 곳. 보이는 것이라곤 흙으로 만든 집 몇 칸과 남녀 할 것 없이 궁둥이를 까고 길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인도인들만 있는 산간 벽지,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는 곳이었다. 말이 통할 리도 만무. 그 양반들은 영어를 단 한 마디도 못했고, 내 힌디어 실력이라곤 ‘나마스떼’(안녕하세요)나 ‘깜까로나’(짜아주십쇼), ‘팔로’(꺼져!) 정도가 고작이었다. 때가 꼬질꼬질한 배낭 위에 혼자 꾸그리고 앉아 오지 않는 버스를 반 나절이나 기다리며, ‘어쩌면 인도 시골에서 평생 짜파티나 굶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필자는 한국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그 때와는 달리 발달해도 너무 발달한 문명의 이기(利己)로 이제 낯설고 물 설은 타국에서도 길을 잃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성항법장치(GPS)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굳이 현지인에게 길을 묻지 않아도 이정표 없는 골목 골목을 알아서 찾아 주고, 유사시 전화 한 통만 걸면 정보 도움을 얻기도 쉬운 세상을 만들어 냈다. 즉, 어지간해선 국제미아 될 일이 없다는 뜻이다.



때로 삶이 두려운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연함 보다 내일도, 내년에도, 십 년 후에도 이 상투적인 생활이 똑같이 되풀이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고로 무엇이든 경험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어서라기 보다 내 세계가 그만큼 확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먹고 사는데 대단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세밀한 ‘전진’이 있고 반복되는 생활의 억압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날 문득 까마득한 산에 오르고, 바다 속 심연 속으로 다이빙을 하고, 무아지경 춤을 추고, 불 같은 연애를 하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모처럼 맞은 꿀 같은 안식년 휴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팍팍한 일상을 떠나 카타르시스의 순간이 필요할 때, 인증샷 찍고 금방 돌아서는 패키지 대신 자유여행을, 관광객 보다는 여행자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 아시아 여행의 보고(寶庫), 인도네시아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동안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텐가. 1. 에메랄드 빛 바닷가 한 컵에 누워 모히또나 훌쩍이며 온종일 망중한을 즐긴다. 2. 고통, 고난을 뜻 하는 여행(travel)의 어원(traveail)대로 익스트림 하드코어 모험을 즐긴다. 3. 인류의 기원을 찾아 고대 유적지 탐방에 나선다.

동북, 동남아 지역에서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여행지를 단 한 곳만 꼽자면 단연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별 갈등 없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는 그 다채로운 신앙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여행지가 존재한다. 당장 떠나도 좋을 인도네시아의 여행지를 소개해 본다.





###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곳, **또바호수**

그럴 때가 있다. “부장님, 사랑해요” “팀장님, 존경합니다” 목구멍에 풀칠 좀 하겠다고 오늘도 영혼 없이 입에 발린 말이 술술 잘도 나오는 내 자신이 문득 징글징글할 때,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고 목소리 높이는 인간들이 더 이상 못 봐줄 만큼 지긋지긋해질 때, 다 내려놓고 은둔하고 싶어지는, 살면서 한 두 번쯤은 꼭 그런 때가 있게 마련이다. ‘또바호수’는 다글다글한 조직 생활에 지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찾아가면 딱 좋을 장소다. 말이 호수지, 길이만 100km에 달하는 바다와 닮은 곳으로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이들은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을 만큼 유희과는 거리가 먼 흔치 않은 휴양지다. 마을에 있는 것이라곤 광활한 칼데라 호수와 때 묻지 않은 자연, 소박한 숙소와 식당,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원 주민들과 동물뿐이다. 이곳에서는 언제 해가 지고 뜨는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얼마나 청량감을 주는지 매 순간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다. 물가가 미안할 정도로 저렴한 것은 덤이다. 비 오는 날 조용한 방안의 라디오 같은 힐링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Tip** 한국에서 또바호수를 가려면 수마트라 메단으로 가야 한다. 메단은 직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 쿠알라룸푸르나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가야 한다. 에어아시아([www.airasia.com](http://www.airasia.com)) 등 저가항공사가 자카르타 - 메단 구간을 수시로 운행한다.



### 마니아들이 반드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섬, **발리**

발리는 억울하다. ‘신혼여행 전매특허 섬, 럭셔리한 풀빌라, 탁하고 깨끗하지 않은 바다’ 등등, 발리에 대한 몇 가지 편견 때문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정형화된 루트로만 다니는 일부 관광객의 후기 탓인데, 자유여행자든 패키지 관광객이든 대개 한 두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다른 휴양지와 달리 발리는 이 두 조합이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만큼 전혀 다른 발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 따라서 단체 관광객과 자유여행자의 호불호가 극명한 곳이다. 발리를 자주 찾는 마니아들이 정착 발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저렴한 물가와 아름다운 바다, 전통과 예술이 살아 있는 평화로운 마을, 동네마다 뚜렷이 차별되는 특색 때문이다. 발리에 화려한 고가의 풀빌라뿐 아니라 5만원 미만의 숙소도 많은데 동북, 동남아를 통틀어 가격 대비 숙소의 질이 가장 높으며,

북부의 바다 ‘멘장안’은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로 맑고 투명한 수중세계를 자랑한다. 발리 남부의 ‘꾸따’ 등지는 젊음의 해방구로 수준 높은 라이브 바와 레스토랑, 클럽 등이 즐비한 반면 예술의 도시로 불리는 중부 ‘우붓’은 공기 좋고 고즈넉해 화가, 글쟁이 등의 장기체류자가 많다.

**Tip** 인천(부산) - 발리 직항은 대한항공, 가루다 인도네시아 등 항공사가 거의 매일 운항하며, 발리 내에서의 이동은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기사 딸린 차량을 하루 50불 내외로 대절할 수 있다. 한국말을 잘하는 가이드도 많아 가족여행에 그만이다. 발리 마니아들이 모이는 발리서프(<http://balisurf.net>)에 정보가 많다.



### Travel Tip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네 곳을 다 가볼 수 있겠지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여행하고 싶다면 ① ‘또바호수 → 수마트라 정글’ ② ‘족자카르타 → 발리’로 나누어 다녀오는 것이 좋다. 1에 가는 법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메단(수마트라 여행의 관문)으로 국내선(2시간 소요) 이용 후 메단에서 또바호수행 합승택시나 버스(4시간~5시간 소요)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 또바호수를 충분히 즐겼다면 다시 합승택시나 버스를 타고 메단으로 나와서 수마트라 정글탐험을 위해 부킷라왕행 버스(4시간 소요)를 타면 된다. 2에 가는 법은 훨씬 쉽고 편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리 직항이 여러 항공사별로 있는데 발리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도 차로 15분이면 된다. 발리 내에서 꼭 가볼 만한 지역(꾸따 - 스미낙 - 우붓 - 로비나(멘장안)) 이동 또한 버스가 있으며 택시를 대여해도 큰 부담이 없다(발리에서 족자카르타는 국내선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발리 길거리 에이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국내선 티켓을 구할 수 있다.

###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인니의 자부심이 된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지만 자바섬에 위치한 ‘족자카르타’는 일명 문화의 수도라 불린다. 나라와 종교가 번성하던 1200년 전의 흔적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사원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 사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엄이 넘쳐 족자카르타를 독보적인 도시로 만들어 준다. 족자카르타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곳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특별자치권을 인정받아 술탄의 통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역사의 향기가 물씬하다. 시내에서 차로 30분만 가면 만나게 되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현실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범상치 않다. 해발 300미터 위, 화강암 위에 지어진 터라 여행자들이 절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프람바난 사원은 살짝 ‘앙코르 왓’의 외형과 비슷하지만 정작 앙코르 왓 보다 수 백 년 앞서 건설된 것이다. 학구적이고 철학적이며 역사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Tip** 자카르타 - 족자카르타는 왕복 국내선 비행기도 많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여행자들도 많다. 자카르타의 감비르역에서 족자카르타까지 편도 8시간이 걸린다.

### 다리 떨리기 전에 도전해야 할 **수마트라 정글탐험**

세계에서 가장 넓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열대 우림이라 하면 흔히 아마존을 떠올리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정글 또한 아마존 못지 않게 전 세계 모든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구의 허파이다. 수마트라 정글탐험에 도전하는 여행자들은 주로 부킷라왕이라는 자연보호구역을 탐험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두 손을 쓰며 언어를 사용하고 직립보행 하는 멸종 위기종인 오랑우탄이 산다. 영장류 중 인간과 가장 비슷한 - 인간과 무려 97%의 유전자가 같다 - 오랑우탄은 아마존에는 없고 오로지 수마트라섬과 보루네오섬에만 존재한다. 수마트라 정글에선 오랑우탄 말고도 성인 몸통만한 도마뱀과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만한 온갖 진귀한 동식물을 만날 수도 있다. 수마트라는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일생에 한 번은 정글에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

**Tip** 자카르타에서 메단 국내선, 다시 메단에서 부킷라왕(수마트라의 도시)로 가면된다. 현지 에이전시에서 수 많은 정글트래킹 상품을 판매한다.

# Voices of Readers

## 고객의 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강남고객본부지부 S&R팀 백건엽**  
케이뱅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매주 교육받는 김영란법 관련 이슈 사항과 대한민국의 전세계적인 자랑 진중오 선수 훌륭한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과의 인터뷰도 흥미로웠으며 지사 C&R팀도 열심히 하시네요. 여행 정보도 많은 참고가 되었어요.

**강남고객본부지부 S&R팀 김민정**  
육아휴직 후 복지 2개월차 직원입니다. 쉬는 동안의 이슈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고 길을 읽는 동안 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인재경영실 인사운영팀 원재희**  
단체, 실손보험 및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한 회사생활을 유지해야겠지만 혹시나 병원에 가더라도 제도를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IP컨설팅지부 조미경**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했는데 의료비 지원제도 등 좋은 정보 감사해요.

**본사지부 기업고객컨설팅센터지부 조영옥**  
'길'을 통해 KT 여러 분야의 살아있는 소식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 중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소감을 읽으면서 '가족' '사랑'이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부산고객본부지부 CS지원팀 박정일**  
항상 조합원에게 회사 내외 및 시사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이슈사항인 김영란법을 다뤄주신 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직원 지원제도와 자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여행코너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많이 다루어 주십시오.

**본사지부 현장기술지원단 이성재**  
이번 소식지에서는 K뱅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놀랍고 GS리테일 및 우리은행의 ATM기에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뱅크와 많은 경쟁을 할 텐데 메신저 플랫폼 위주의 전략을 펼칠 카카오프뱅크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관련 기사 많이 부탁 드립니다.

**서대전지부 C&R팀 전명희**  
뉴스를 통하여 하반기 행사를 엿볼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한 공감코칭은 열심히 일하는 정정필님의 사연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일하시는 분에게 따뜻한 인사와 말 한마디 꼭 전하도록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부 영업기획팀 위성훈**  
이번 소식지에서도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K뱅크 관련하여 이슈가 많아 내용이 궁금했는데 기획 특집기사로써 이를 접할 수 있어서 유용한 특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KT의 복지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사 C&R팀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며 고생하시는 양선희 차장님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서부고객본부지부 BIZ영업팀 장세준**  
신입사원으로 이번 달 처음으로 잡지를 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만 집중하다 보니 주변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를 통하여 진짜 사람사는 KT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부 아주머니의 인터뷰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의 입장, 그리고 자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로,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 KTTU QUIZ

				세로1		
		가로1			세로2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부모의 직장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이해와 조합원들의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명은?(12페이지 참고)

**세로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텍스/현금영수증/e세로 등 8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 명칭은?(27페이지 참고)

**세로 2**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달리 부르는 명칭은?(24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